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에 힘 모은다!

대구시-대구시의사회-대구시약사회-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대구광역시시는 10월 21일(화)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이종훈 대구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장이 참석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및 안전망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구시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생명지킴이 홍보에 필요한 지원 및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 △기타 정신건강

강·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요청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단체는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대구시민 정신·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와 '생명지킴이 홍보 및 활동 참여'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식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대구 시민 모두가 나를 지키고 주변을 지키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일상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 속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금)부터 28일(화)까지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한윤석 기자

유튜브 경북여행단 프로젝트 본격가동

전국 공모로 선정 유튜버 13명 활동 돌입... 산불 피해지역 활력 불어넣어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 경북여행단 프로젝트'가 전국 유튜버들의 선한 동행 속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 북부 산불 피해지역의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되었으며, 관광을 단순한 소비활동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돕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러한 취지 아래, 지난 6월 참여자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

명의 유튜버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명소와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피해로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 자존감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최근 활동 중인 유튜버 13명의 프로젝트를 보이소 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산불 피해지 현

장을 직접 걸으며,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피해지역의 생생한 현주소와 함께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행 크리에이터 A씨는 "피해지역을 직접 경험하며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단순 홍보를 넘어, 이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로컬 체험 크리에이터 B씨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를 영상에 담았다. 시청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윤석 기자

경남도 희망은 동행으로 다시 지어진다

경상남도는 "도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맞춤형 주택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내 총 1,415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전파 180동, 반파 109동, 침수 1,126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침수 주택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사 등이 예정된 8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의 복구가 완료됐다. 반파 주택은 전체 109세대의 약 67%인 73세대가 복구됐다.

전파 주택은 180세대 중 132세대가 복구의 의사를 밝혔다.

이 중 58세대는 신축을, 9세대는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 중이며

나머지 65세대는 복구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주택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상능마을(13세대)은 주민 전원이 이주를 희망해, 현재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 협의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주 완료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민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주택 복구비의 경우 전파 주택은 6,000만 원이 추가된 최대 9,950만 원, 반파 주택은 3,000만원이 추가된 5,000만 원, 침수 주택은 350만 원이 추가된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 복구비는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7%에 지급을 완료했다. 무허가 주택 등 남은 23%는 적법 복구를 이행하는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비와 감리비의 50%를 감면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축 주택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주택 복구·구입을 위한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며 △시군은 복구 주택의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산청군과 합천군에는 '동행복구단'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

15분도시 부산, 서울시의회와도 공감대 넓혀가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참석 15분도시 정책 교류 추진



부산시는 21일 「부산시-서울시의회 15분도시 부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과 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분도시 부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그와 관련된 정책 응답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15분도시 주요 핵심 거점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정 들락날락'과 40여년 만에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 옛 시장 관사 '도모현'을 방문하여 15분도시 정책 추진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15분도시 정책 선도 도시인 부산의 우수 사례 및 성과와 비결을 공유하는 등, 정책적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시민 행복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다.

시는 2022년에 15분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대표생활

권 조성, 정책공모사업, 비전투어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들락날락, 하하센터, 우리 동네 이예스(ESG)센터, 도모현 등 핵심 거점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통해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세대와 이웃이 함께하는 시민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제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파리대학, 파리 기업 행정 연구소(CHAIRE-ETI) 등 대외적인 협력(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5분도시 부산」의 정책 우수성을 알리는 등 브랜딩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엔(0)분 도시와 유사한 개념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시행해 나가고 있었으며, 2023년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

본계획'을 기준으로 '보행일상권(30분 생활권)' 개념을 발표하여 올해 4월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도출 및 8개 시범사업지 선정 등을 하는 등 초석을 다졌고,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국내외 엔(0)분 주요 도시 간 협력을 통해 '15분도시 부산'의 완성도를 높이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울산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해외 진출을 돕는다”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지역 미래차·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6개사 지원

울산시는 코트라(KOTRA) 울산산지원분부와 함께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컨텍스에서 열리는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참가한다.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규모 사업 상담회인 수출 불업코리아 워크(Week)에 열리는 행사로 구매자 700개 사, 국내기업 2,000개 사가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린노알미늄 주식회사, ㈜산양화학, 오성테크 울산공장, 정일이엔지 등 지역 자동차

부품 6개사가 참여한다. 울산시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수출 상담을 위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구매자와 연계 ▲울산시 특별관 조성 ▲통역 등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일산컨텍스를 방문해 연계된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갖고 기업의 제품 소개와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논의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수출상담회 참가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체계적인 사업화와 수출 판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울산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속 자동차 부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행사에 방대한 세계 구매자와의 상담 추진으로 대세·특수 시장을 발굴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은 단 119항공대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간월재를 포함한 영남알프스 일대에서 울산 6개시의 구조대와 합동 항공 산악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울주7봉 등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시기에 산악인명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소방헬기 장비 소개와 항공산악구조장비 운용 실습, 헬기 데릴 및 산악인명구조 임무 절차이다.

특히, 추락사고 발생을 가정해 항공을 들것 등 산악구조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근 기자

민·관·기업,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 공동선언해

울주군, 21일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울주군 민·관·기업이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울주군은 21일 이순걸 군수와 온산공단, 새울원자력 등 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로 예

정된 국토교통부 KTX-이음 추가 정차역 확정에 앞서 남부권 주요 산업거점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승헌 온산공업단지협회 협회장(고려아연 부사장), 박성훈 S-OIL 상무, 정민 세진중공업 상무, 오창호 LS MnM 이사, 이용식 ㈜일성하이스코 부사장,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 등 울주군 주요 기업들과 KTX-이음 남창역정차 범국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창역 정차의 필요성과 산업·비즈니스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동선언을 통해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울산 남부권

의 도약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남부권의 지속 성장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며,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지역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한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울산 남부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KTX-이음 정차를 통해 기업활동과 비즈니스 이동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 발표 뒤 서명식을 통해 남창역 정차 유치를 위한 산업계의 공동 의지를 모았다. 군은 향후 공동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의료·보육 통합 ‘거창 의료복지타운’ 착공식 개최했다

거창군은 21일, 거창 의료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착공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거창을 주된, 경상남도, 거창직접심사위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착공식은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이 자라나는 공간에 선보여 행사에 활기를 더했으며, △사업 결과 보고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

사 △시식순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에는 의료복지타운 조감도와 주요시설 배치도 등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02억 원을 투입해 6만 1천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의료 시설 및 기숙사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센터 ▲육아드림센터 등 의료·보육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병원 주변에는 병원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과 주차장이 조성되고, 약국·음식점 등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도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해 1월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6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11월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이었던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경남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경상남도 도

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8월 우리군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행정절차를 단기간에 마무리하였다.

핵심 시설인 거창직접심사위원은 2,300여명 규모의 전역 국비 사업으로, 기존 9개과 91명에서 18개과 300명상 규모의 종합병원급으로 이전·신축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여 서북부 경남권 공공의료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최성룡 기자